

KOSDAQ | 자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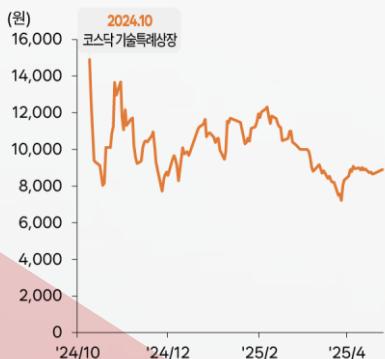
루미르 (474170)

2026년 도약이 기대되는 루미르

체크포인트

- 루미르는 국내 최초 SAR 위성 전주기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2024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 상장. 2024년 매출 구성은 위성 제조 75%, 민수 장치 25%. 2026년부터 자체 고해상도 위성 발사, 영상 데이터 판매 본격화에 따른 위성 서비스 매출 증가 기대
- 동사는 차세대중형위성 5호기 탑재체 수주, Space Pioneer 프로젝트 2개 과제 수주 등 국가 전략사업에 다수 참여. 위성영상 저장장치, SAR 통신모듈, 자세제어장치 등 핵심 장비 국산화. 민수 부문은 위성 기술 기반 선박용 연료분사 제어 밸브 개발해 국내 대형 조선사 독점 납품 중
- 2025년 대형 국책 사업 위성 제조 신규 수주 및 민수 장치 부문 고객사 수요 증가에 힘입어 매출액 211억 원(YoY+52%) 전망. 2026년 LumirX 1·2호 발사 후 고해상도 SAR 영상 데이터 판매하여 위성 서비스 매출 100억 원 내외 발생 기대. 2027년 이후 연간 4기 이상 발사체 계획 등 총 18기의 SAR 위성군집시스템 확보하여 데이터 수익화 극대화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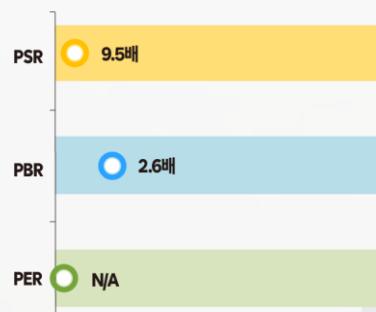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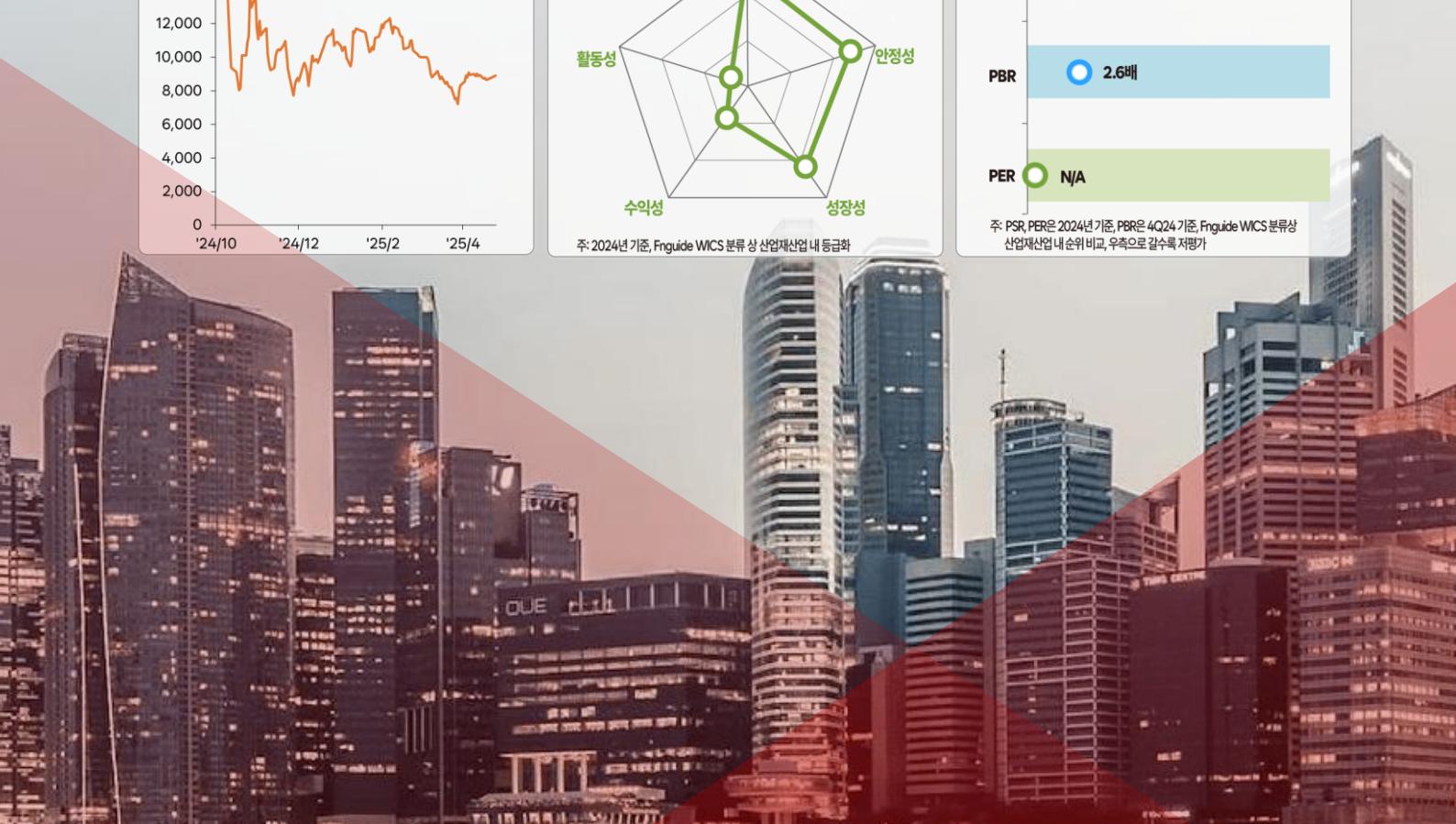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산업재산권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 루미르 (474170)

Analyst 이나연 lny1008@kirs.or.kr

KOSDAQ

자본재

## 고해상도 SAR 위성 개발·제조 및 영상 데이터 서비스 사업 영위

2024년 10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고해상도 SAR 위성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위성 제조 및 영상처리 데이터 판매까지 수직계열화 구조를 갖춘 민간 기업. SAR 위성은 날씨, 주야간 관계없이 영상 확보 가능해 EO(광학) 위성 대비 국방, 해양 감시,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급증하는 추세. 본사 및 위성 조립 시설은 대전, 2027년부터 연 4기 이상 위성 양산 가능한 신사옥 구축 중

## 위성 제조 및 민수 사업 중심의 외형 성장 지속

2024년 기준 매출 구성은 위성 제조 75%, 민수장치 25%. 동사는 차세대중형위성 5호기 탑재체 수주, Space Pioneer 프로젝트 2개 과제 수주 등 국가 전략사업에 다수 참여해 위성영상 저장장치, SAR 통신모듈, 자세제어장치 등 핵심 장비 국산화. 민수 부문은 위성 기술 기반 선박용 연료분사 제어 밸브 개발해 국내 대형 조선사 독점 납품 중. 2025년 대형 국책 사업 신규 수주 본격화 및 친환경 선박 규제 확대에 따라 민수 장치 고객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외형 성장 전망

## 2026년 SAR 위성 데이터 플랫폼 전환 본격화

2026년 SpaceX를 통해 자체 보유 SAR 위성 LumirX(해상도 0.3m급) 12호 발사할 예정이며,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 판매를 통해 위성 서비스 매출 약 100억 원 내외 기대. 위성 서비스는 한번 구축된 위성에서 반복적으로 데이터 생성해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원가 부담이 거의 없어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고마진 사업. 동사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 우수한 해상도와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 확보. 2030년까지 18기의 위성군집(0.3m → 0.15m 해상도 고도화) 운영하여 글로벌 커버리지 확보 및 구독형 영상 플랫폼 전환 본격화할 계획. 단순 위성 제조 업체를 넘어 지속 가능한 데이터 자산 사업자로 재평가 기대

###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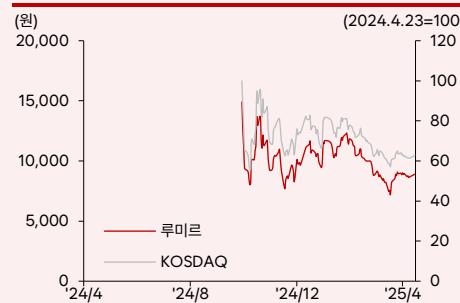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49	64	121	143	217
YoY(%)	N/A	28.9	90.5	17.7	52.2
영업이익(억원)	-4	-24	-30	-12	2
OP 마진(%)	-8.2	-38.0	-24.9	-8.4	1.1
지배주주순이익(억원)	-4	-244	-59	-11	4
EPS(원)	-40	-1,976	-424	-75	21
YoY(%)	N/A	적지	적지	적지	흑전
PER(배)	N/A	N/A	N/A	N/A	432.3
PSR(배)	0.0	0.0	0.0	11.1	7.3
EV/EBITDA(배)	N/A	N/A	N/A	N/A	92.7
PBR(배)	0.0	N/A	0.0	3.0	2.6
ROE(%)	-5.7	193.9	1,524.6	-2.5	0.6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Company Data

현재주가 (5/7)	8,910원
52주 최고가	14,910원
52주 최저가	7,200원
KOSDAQ (5/7)	722.81p
자본금	89억원
시가총액	1,580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8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79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91억원
외국인지분율	16.1%
주요주주	남명용 외 1인
	490.2%

### Price & Relative Performance



###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9.1	-34.7	
상대주가	7.3	-338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 기업 개요

### 1 국내 유일 SAR 위성 전문 기업

#### 2024년 10월 코스닥 시장

#### 기술특례상장

루미르는 정밀 전자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고해상도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위성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한 위성영상 서비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SAR 위성 전문 기업이다. 2009년 11월 '(주)제이엔엠시스템'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9월 현재의 사명인 루미르(주)로 변경하였다. 2024년 10월,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국내 공공기관과의 협력 기반 위성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 민수 및 우주 분야로 사업 확대

설립 초기에는 민수 산업용 정밀제어 장치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우주항공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내 공공기관 주도의 위성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우주항공 분야로 사업 확대를 본격화했다. 특히 위성 제조 사업에서 정부 주도의 '차세대중형위성 5호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SAR 탑재체 및 자료전송장치(PDTS)를 단독 수주하면서 국내 SAR 위성 기술 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 자체 고해상도 SAR 위성

#### 'LumirX' 1·2호를 개발 중

현재 루미르는 자체 고해상도 SAR 위성 'LumirX' 1·2호를 개발 중이며, 2026년부터 자체 위성을 활용한 데이터 서비스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위성 제조뿐 아니라 데이터를 직접 수집·처리·판매하는 수직계열화 구조를 기반으로 SAR 영상 데이터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기업인 쎄트렉레이(EO 위성 중심), 한화시스템 (SAR 위성 제조 역량 보유)과의 사업 포지셔닝에서 뚜렷한 구분점을 형성한다. 특히 국내에서 SAR 위성 데이터 플랫폼을 지향하는 사업 모델은 루미르가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 Tier 1 공급사

기술력 측면에서 루미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Tier 1 공급사로 분류되며, 스페이스파이오니어 및 스페이스이노베이션 국책과제에 복수로 선정된 기업이다. 특히 영상자료처리장치, 우주인터넷통신장치, 솔레노이드 등 고신뢰 전자부품의 국산화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IECEEx 방폭 인증, 미국 특허까지 확보하며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 위성 기획-제작-운용-데이터

#### 서비스까지 전 주기 플랫폼 기업

루미르는 단순 위성 부품 공급을 넘어, 위성 기획-제작-운용-데이터 서비스까지 전 주기를 자체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중심의 New Space 시장에서 국내외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기업을 고객군으로 확보해 나가는 데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2 사업 구조 및 주요 제품

#### 2024년 기준

#### 위성제조 75%, 민수 25% 차지

루미르의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위성 시스템 및 탑재체 개발을 포함하는 위성 제조 사업, 2) 자체 보유 위성을 활용한 영상 데이터 기반 위성 서비스 사업, 3) 위성 기술을 민수 산업에 응용한 정밀 제어 장치 사업이다.

2024년 기준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위성 제조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75%를 차지하며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민수 부문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위성 서비스 부문은 아직 자체 위성 발사 전이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만, 2026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반영이 기대된다. 향후 루미르는 위성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데이터 중심의 반복 매출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플랫폼형 우주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위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전자 장치를 국산화 개발

위성 제조 부문에서 동사는 영상자료처리장치(IDHU), 달 탐사용 우주인터넷 통신장치(DTNPL), 탑재컴퓨터(OBC), 제어모멘트자이로 제어장치(CMGC) 등 위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전자 장치를 국산화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프로젝트인 '차세대중형위성 5호'에서 C-Band SAR 탑재체와 자료전송장치(PDTS)를 단독 수주하며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루미르는 SAR 위성의 센서부터 본체 시스템까지 자체 개발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이다. 현재 개발 중인 LumirX 시리즈는 0.3m급 초고해상도 X-Band SAR 센서를 탑재한 150kg급 소형 위성으로, 자체 기술로 구현한 초소형 SAR 장치인 CATIS™ 모듈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 총 18기의 LumirX 군집위성시스템 구축하여 SAR 영상 데이터 획득 목표

특히 위성 서비스 부문은 루미르가 장기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핵심 영역으로, 자사 위성(LumirX)으로부터 획득한 초고해상도 SAR 영상 및 부가정보(Value Added Services)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중심의 플랫폼 비즈니스다. 2026년 발사가 예정된 LumirX 1·2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며, 향후 연간 4기 규모로 생산을 확대하여 총 18기의 군집위성시스템을 구축해 전지구 영역에 대한 지구관측 영상 데이터 획득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는 AI 기반 객체 탐지, 도시 기반시설 변화 감시(InSAR), 해양오염 탐지 등 고정밀 영상 해석 기술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국방, 해양, 환경, 국토관리 등 다양한 공공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및 해외 시장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위성 기술 기반 선박용 연료분사 제어 밸브 개발해 국내 대형 조선사 독점 납품 중

민수 부문에서는 위성 기술에서 파생된 자기 베어링 반작용 휠 기술을 활용해 선박용 연료분사 제어 밸브(대용량 솔레노이드)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국내 대형 조선사 H사에 독점 납품 중이다. 솔레노이드는 선박 엔진의 연료 공급을 제어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선박의 안정성, 효율성을 보장하며 선박 엔진 성능을 유지하고 연료 소비를 최적화하는데 기여한다. 동사의 대용량 솔레노이드의 경우 IECEx 방폭 인증을 취득하였고, IMO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고정밀 부품으로 국내외 조선업계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선박 엔진 솔레노이드는 루미르의 위성 기반 전자제어 기술이 해상 산업으로 확장된 사례로, 동사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 ▣ 대표이사 소개 및 주주 구성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49.02%

설립자인 남명용 대표이사는 KAIST와 도쿄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기술 전문가로,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교수, 일본 웰리서치 연구소 책임연구원을 거쳐 루미르를 창업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배경은 루미르가 단순 부품조립 수준의 벤처기업을 넘어서, 위성시스템의 설계-개발-운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업으로 자리잡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루미르의 최대주주는 남명용 대표이사로 지분 46.39%를 보유 중이며,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9.02%를 차지한다. 이 외에 컴퓨터케이파트너스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4.55%, 스마트코리아컴퍼니케이션 언택트펀드 1.53%, 기타 소액주주 44.90%로 분산된 주주 구성을 이루고 있다.

## 루미르 연혁

진입기(2009~2019)		성장기 (2020~2021)	도약기(2022~)
국내 최초 위성영상자료처리장치 국산화 우주인터넷 통신장치 개발 성공		국내 유일 스페스파이온니어 사업 12개 과제 중 2개 복수수주	누리호 3차 부정자 위성 Lumir-T1 발사 성공 차세대 중형 위성 5호 C-밴드 영상레이더 품차체 수주
2009.11	주식회사 제이엔엠시스템 설립	2020.03	KOTA 7 기부설연구소 R&D 역량 강화 지원사업
2016.09	사명변경 루미르(주)	2020.09	초분광 카메라 수주(ETR)
2016.07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2호 영상데이터 처리장치 수주(KARI)	2020.09	차세대 중형 위성 4호 영상자료처리장치 수주(KARI)
2017.11	다목적 실용위성 7호 전면체 전자 상자 원장비 수주(KARI)	2021.06	스페스파이온니어 사업 고속고기동 위성의 제어모멘트자이로 과제 선정
2018.03	국내 최초 우주급 SMT 절차 인증 취득(KARI)	2021.1	Ko밴드 송신기 및 Kc밴드 등동형 앤리피 인테나 과제 선정
2018.07	누리호 달 탐사선 우주인터넷 통신장치 제작 수주(ETR)	2021.10	기관투자유치(Series B)
2018.09	기관투자유치(Series A)		누리호 3차 부정자 위성 Lumir-T1 발사 성공
2019.10	EOJ 위성 전력계 전기자상자 원장비 수주(KARI)		기관투자유치(Series C-2)
2019.12	반사파 기반 C-밴드 고속 빙포밍 모듈 수주(KARI)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2023.12 대한민국 ICT 대상 디지털 부문 혁신 기술 선정
			2024.06 우수 기업 연구소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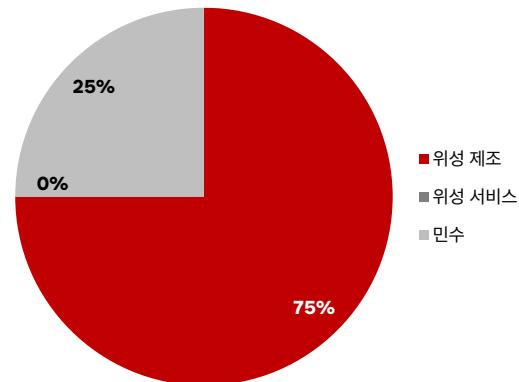
자료: 루미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루미르 사업 영역



자료: 루미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2024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 구성



자료: 루미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루미르의 0.3m 초고해상도 초소형 SAR 위성 LumirX



자료: 루미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산업 현황

### 1 위성영상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SAR 위성의 부상

#### 지구관측 위성 산업의 구조적 전환 가속화

루미르가 진출한 지구관측 위성(Earth Observation, EO) 산업은 인공위성을 활용해 지상을 관측하고, 이를 영상 데이터 및 부가정보(Value-Added Services, 이하 VAS) 형태로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형 시장이다. 이 산업은 New Space 시대의 도래와 함께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위성 제작 및 발사 비용의 하락, 초고해상도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의 고도화 등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 광학 센서 중심에서 SAR 센서로 수요가 이동

지구관측 위성은 센서 방식에 따라 광학(EO) 센서와 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센서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는 일조량 및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 EO 센서가 시장의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주야간·전천후 관측이 가능한 SAR 센서의 활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해상도 SAR 기술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센서별 시장 점유율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2030년까지 고정밀·전천후 센서 수요가 급증할 것

유로컨설트(Euroconsult)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센서별 시장 점유율은 VHR(고해상도 광학) 42%, H-MR(중·저해상도 광학) 27%, SAR 18%, VVHR(초고해상도 광학) 13% 순이었으나, 2030년에는 SAR과 VVHR의 비중이 각각 20%로 상승하고, VHR과 H-MR은 각각 38%, 2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통적인 광학 위성에서 벗어나, 정밀도와 날씨 무관성을 갖춘 고정밀·전천후 센서로 산업 구조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SAR센서는 국방·해양·재난 대응 등에 활용

이 가운데 SAR 센서는 구름이나 야간에도 관측이 가능해 국방, 해양 감시,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루미르와 같은 SAR 위성 전문 기업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실제로 글로벌 SAR 위성 장치 시장은 2024년 약 50억 달러에서 연평균 14.2%의 성장률을 기록해 2031년 약 1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단순 영상보다 AI 기반 분석 등 고부가 응용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한편, 위성 영상 서비스 시장에서는 단순 영상 데이터보다 이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부가정보(VAS)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Euroconsult에 따르면 2023년 기준 VAS는 위성 서비스 시장의 56%를 차지했으며, 2026년에는 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천 데이터 자체보다 AI 기반 분석, 패턴 탐지, 시계열 변화 분석 등 고부가가치 응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위성 제조에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사업으로 전환

이러한 산업 구조 하에서 위성 영상 기업들은 단순한 위성 제작·운영 기업에서 벗어나,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반의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핀란드의 ICEYE, 미국의 Capella Space, Umbra, 일본의 iQPS 등 소수 기업만이 이러한 모델을 대표하고 있다.

#### 국내 기업은 광학 중심의 쎄트렉아이와 SAR 중심의 루미르가 존재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데이터 플랫폼 구조까지 수직계열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한 기업은 부재하며, 대부분 위성 제작 또는 영상 데이터 판매에 국한된 단일 사업 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쎄트렉아이는 자회사 SIS(Satrec Initiative Imaging Services)를 통해 EO 위성 영상을 수집·판매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루미르는 SAR 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직접 운영함으로써, 영상 수집부터 처리·분석·판매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 플랫폼 구축을 준비 중이다. 이를 두 기업은 향후 국내 위성 데이터 산업의 구조적 진화를 이끄는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공공 분야를 넘어 민간 분야에서도 수요처 확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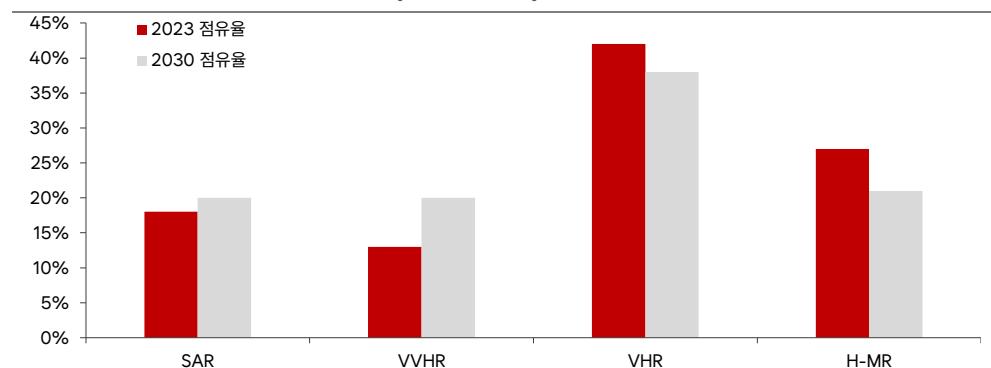
국내외 수요 측면에서는 군사·재난감시·환경·국토관리·에너지·항만관리 등 다양한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의 인프라 모니터링, ESG 대응, 해양오염 관리 등으로 시장의 활용처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정부 중심의 초기 수요와 국가 우주 전략 하에서의 기술 국산화 요구가 맞물리며, 국내 위성 데이터 산업은 향후 빠르게 실증과 확장을 거쳐 민간 확산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 EO(광학센서) vs SAR(전파센서) 비교



자료: 루미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지구 관측 위성 시장 내 센서 종류별 점유율 변화(2023 vs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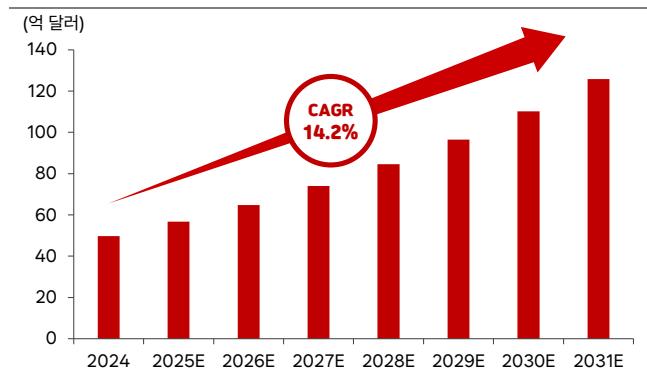


주: SAR(전파 기반 능동형 센서로 주야간 및 악천후에도 관측 가능), VVHR(0.3m 이하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

VHR(0.3~1m 고해상도 광학 위성), H-MR(1~10m 저해상도 광학 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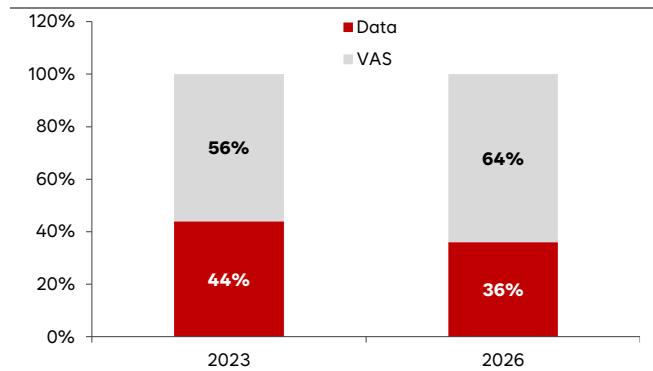
자료: Euroconsult, Space Economy Repo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글로벌 SAR 시장 규모 추이



자료: Euroconsul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데이터 시장 vs 부가가치서비스 시장 비중 변화



자료: Euroconsul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SAR 위성 주요 경쟁 기업 비교

## SAR 위성은 기술·자본 장벽이

## 높은 산업

지구관측 위성 산업은 기술·자본 장벽이 높은 분야로, 특히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극소수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SAR 위성은 야간이나 악천후 등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지상의 변화 정보를 관측할 수 있는 능동형 레이더 위성으로, 군사·재난·환경·해양·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ICEYE, Capella, Umbra, iQPS

## 등이 민간 SAR 시장을 선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핀란드의 ICEYE, 미국의 Capella Space와 Umbra, 일본의 iQPS 등이 민간 SAR 위성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자체 위성 보유를 기반으로 영상 데이터와 부가정보(Value-Added Service, 이하 VAS)를 플랫폼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위성 수십 기를 통해 빠른 재방문 주기와 전 지구적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 초소형 SAR 위성 군집 운영으로

## 고빈도 관측망 구축

ICEYE는 세계 최초로 상업용 초소형 SAR 위성 기술을 상용화한 스타트업으로, 현재 약 25기 이상의 SAR 위성을 군집 운영하며 고빈도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단순 영상 판매를 넘어 재난 감지, 침수 분석, 불법 조업 탐지 등 의 고부가 VAS(Value-Added Services)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자체 분석 알고리즘과 파트너 API를 통해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고객층은 민간 보험사, 국제기구, 정부기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 미국 정부 계약 기반으로 안정적인

## 수익 창출

Capella Space는 고해상도 SAR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 API로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국방부(DoD) 및 정보기관(이하 IC)과의 전략적 데이터 계약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Capella는 데이터 단위의 B2B 판매에서 나아가, 개방형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자동화된 분석 툴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의사결정 효율성 향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0.25m급 고해상도 SAR 위성을

## 통해 정밀 데이터 제공

Umbra는 해상도 0.25m급 SAR 위성 개발을 통해 고정밀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및 방산 파트너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한 상태다. 최근에는 타 플랫폼과의 통합 API 제공, 자동화된 오브젝트 추적 기능 등 분석 기반 서비스를 통해 단순 데이터에서 플랫폼 제공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 내 공공 수요 대응을 위한 자국형 수직계열화 모델

일본의 iQPS는 일본 내 자국 산업 및 재난 대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화된 고해상도 SAR 위성을 기반으로 위성-데이터-활용을 연계한 자국 내 수직계열화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 방재청, 항만청, 지자체와의 실증 프로젝트를 병행하면서, 지역 중심의 공공 VAS 모델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 영상 판매를 넘어 실시간 API, 자동분석 등으로 확장

이와 같은 구조는 단순 제조기업과 달리,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플랫폼형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기업만이 가능한 영역이며, 영상 판매를 넘어 정기 구독, API 연동, 실시간 모니터링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모델은 영상 처리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분석 역량을 중심으로 수익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위성 제조 기업과 구별되는 경쟁력을 가진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는 쎄트렉아이와 루미르가 각각 광학(EO) 위성과 레이더(SAR) 위성 분야에서 대표 민간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 2025년 자체 EO 위성 운용 예정, SAR 탑재체 개발도 병행

쎄트렉아이는 EO 기반 위성 시스템 개발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대형 위성 제작 및 다수의 해외 수출 실적을 통해 EO 위성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차세대중형위성 1·2호 개발 참여와 EO 광학 탑재체 수주가 있으며, SAR 탑재체 및 RF 조립체 개발에도 참여하며 SAR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25년 3월에는 자체 개발한 초고해상도 EO 위성 SpaceEye-T(0.3m급)를 발사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직접 위성을 운용하며 영상 판매(자회사 SIS) 및 AI 분석 서비스(SIA)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 2026년부터 LumirX 운영 통해 SAR 위성 영상·분석 서비스 본격화

반면, 루미르는 초고해상도 X-band SAR 위성을 기반으로 자체 위성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영상을 분석·판매하는 플랫폼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 성과로는 차세대중형위성 5호기에서 SAR 탑재체 및 자료전송장치를 단독 수주한 이력이 있으며, 2026년부터는 자체 위성인 LumirX 시리즈의 운영을 통해 영상 및 분석서비스 매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쎄트렉아이는 제조 중심에서 플랫폼으로 확장 중, 루미르는 애초부터 수직계열 SAR 플랫폼 모델을 지향

두 기업 모두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출신 인력이 창업한 기술 기반 기업이며, 쎄트렉아이는 수주형 제조 모델에서 자체 위성 플랫폼 확장까지 이행하고 있는 구조이고, 루미르는 초기부터 수직계열화 모델을 전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국내외 경쟁사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 위성 제조 기술뿐 아니라 영상의 분석·활용에 이르는 데이터 중심 사업모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향후 민간 위성 산업은 이러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경쟁 우위를 재편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 글로벌 SAR 기업 비교 테이블

기업명	국가	위성 보유수	최대 해상도	사업 모델	주요 고객
ICEYE	핀란드	30기 이상	0.25m	자체 위성 + API 기반 영상·VAS 판매	NATO, 정부기관
Capella Space	미국	12기 이상	0.5m	미국 정부, 국방 대상 중심	미국 국방부
Umbra	미국	10기 이상	0.25m	고정밀 위성 운영, 재해안보용	보안 및 재난 기관
iQPS	일본	6기 운용 중	0.46m	일본 내 공공·민간 대상 분석서비스	일본 정부 및 자체
루미르	한국	'26년까지 2기 예정	0.3m	자체 위성 + 영상부가정보(VAS) 서비스 준비	미정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국내 위성 기업 비교

구분	세트레이어	루미르
위성 종류	EO(광학관측)	SAR(전천후 레이더)
주요 기술	광학 탑재체, 전자광학 카메라, 위성 시스템 통합	X-band SAR 센서, 영상처리장치, 방폭 슬레노이드
주요 수주	차세대중형위성 1~2 호	차세대중형위성 5 호 SAR 탑재체/PDTS 단독
사업 구조	위성 제조 중심 → SIIS 통해 데이터 사업 확장 중	위성 자체 보유 → 데이터 판매 및 분석 중심
수익 모델	수주형 위성 제작(정부/해외기관) 중심	반복 수익 가능한 플랫폼 구조 지향
성장 전략	군집형 EO 위성 개발, 수출 확대	위성 서비스 모델 확보 후 글로벌 확장 예정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 18기 위성군집이 만드는 데이터 자산, 루미르의 구조적 성장 모멘텀

### 자체 SAR 위성 개발부터 AI 분석·판매까지 가능한 전주기 데이터 플랫폼 기업

루미르는 X-band 기반 고해상도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을 직접 개발·운용하고, 수집된 영상을 AI 기반 분석 및 부가정보(VAS) 형태로 가공·판매하는 수직계열화된 데이터 플랫폼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CATIS™, IDHU, PDTs 등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완료한 루미르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SAR 위성 전주기 기술 보유 기업으로, 단순 위성 제조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데이터 자산 사업자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

### 2030년까지 총 18기 SAR 위성군을 구축할 계획

2026년 자체 개발한 LumirX 위성 1·2호 발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8기의 SAR 위성군집(Constellation)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단일 위성 수준을 넘어 글로벌 커버리지 확보 및 재방문 주기 단축이 가능한 체계로, 해상도 또한 2026년 0.3m급에서 2027년 이후 0.15m급까지 고도화될 예정이다. 고정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농업, 해양 감시,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글로벌 응용 분야에서 고부가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위성 서비스는 초기 위성 개발·제작·발사 과정에서 고정비가 집약되지만, 일단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면 5~7년간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영상 데이터를 추가 원가 없이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매우 높은 수익성을 지닌다. SAR 영상은 국방·재난 감시·해양 모니터링 등 다양한 영역에 재활용 가능하며,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무제한 복제가 가능해 수익이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구조다.

### SAR 위성은 EO보다 분석 난이도가 높지만 영상 단가 및 활용성이 높음

실제로 루미르의 Spotlight 모드(0.3m 해상도)는 ICEYE 대비 해상도는 약 1.7배 우수하고 가격은 약 80% 저렴한 \$1,813 수준으로, 원가 부담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높은 단가의 데이터를 반복 판매하는 고마진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일반 제조업 대비 영업이익률이 60~80%에 달할 수 있으며, 위성 수 증가에 따라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데이터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익의 기하급수적 확대가 가능하다.

### 루미르의 0.3m 영상은 ICEYE 대비 해상도는 높고 가격은 80% 저렴

2024년에는 SpaceX와의 발사 계약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사체 확보 기반을 마련했으며, 데이터 전송 및 후 처리 전반은 자사 SAR 전용 처리 소프트웨어(SARDIP™)와 고속 영상처리 시스템(IDHU)를 통해 자체 수행 가능하다. 이는 설계·운용·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제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루미르의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 위성군집 완성 시 데이터 자산 기업으로 재평가 기대

글로벌 시장에서는 ICEYE, Capella Space 등 일부 기업이 군집 기반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전개 중이며, 루미르는 이들과 유사한 사업 구조를 최초로 국내에서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다. 향후 18기 위성 운용이 본격화되면, 루미르는 단순 위성 제조업체가 아닌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시장에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외 영상 판매사와는 달리 전 과정 기술을 내재화한 수직계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영상 공급을 넘어 지속 가능한 데이터 자산 사업자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 루미르 SAR 위성 군집 계획



자료: 루미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루미르 SAR 위성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

높은 가격 경쟁력

최고 수준의 해상도

제품	가격		해상도	촬영면적
	신규촬영	아카이브		
SAR (루미르)	Spotlight	\$ 1,813 높은 가격 경쟁력	-	0.3 m 최고 수준의 해상도
SAR (ICEYE)	Spotfine	\$ 8,580	\$ 840 0.5 m	5 km x 5 km
EO (BlackSky)	Spot	\$ 2,592	\$ 840 1 m	5 km x 5 km
	Strip	\$ 1,497.6	\$ 360 3 m	5 km x 30 km
	Scan	\$ 1,166.4	\$ 360 15 m	100 km x 100 km
Preferred	\$ 192	\$ 100	1 m	5 km x 5 km
Standard	\$ 486	\$ 100		

자료: 루미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 국가 주도 SAR 위성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 SAR 위성 산업은 정부기관 중심의 수요가 높음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은 군사, 재난 감시, 해양 관측, 국토관리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에 활용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민간 수요보다 정부기관 중심 수요가 절대적으로 높은 분야다. 이는 SAR 위성 기술이 국가 안보 및 공공 목적에 필수적이며, 개발 및 운용에도 국가 자금과 인프라 투입이 필수적이라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 ‘차세대중형위성 5호’ 사업에

### SAR 탑재체, PDTS를 단독 수주.

### 민간 최초로 상용급 SAR 통합

### 개발 실적 확보

이러한 시장 구조 속에서 루미르는 국내 정부 주도 위성사업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중형위성 5호’ 사업에서 SAR 탑재체 및 자료전송장치(PDTs)를 단독 수주하며, 국내 최초로 고해상도 레이더 위성 핵심 구성품을 통합 개발한 민간 기업이 되었다. 이 실적은 단순한 기술 납품을 넘어 SAR 상용급 기술 실증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향후 국내 SAR 위성 군집체계 개발 사업 등에서도 우선 공급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항우연 Tier 1 협력사로

### 다양한 우주 국책 과제를 수행 중

또한 루미르는 항우연(KARI)의 공식 Tier 1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산 우주부품 상용화 사업(스페이스 파이오나어 과제), SAR 영상처리 고도화 과제 등 다수의 국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단발성 수주를 넘어, 국가 전략 기술 체계 내 주요 파트너로 루미르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우주항공청은 SAR 중심의 위성

### 개발을 추진 중, 정부 주도 10기

### 이상 SAR 위성 체계 구축 계획

수요 측면에서도 향후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 2024년 출범한 우주항공청(KASA)은 국산 위성 기술 독립과 SAR 군집체계 개발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기 이상의 국산 SAR 위성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방 및 재난 감시, 국토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기상·주야간 제약 없는 SAR 영상의 전략적 가치가 EO(광학) 영상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일부 활용처에서는 SAR 수요가 EO를 대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국가 위성 체계가

### EO에서 SAR 중심으로 전환 중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다목적실용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계획이다. 초기에는 광학 센서 위주였던 위성 체계가, 최근 5호기부터 SAR 센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국가 위성 체계 전반의 광학에서 SAR 중심으로 구조 전환 중심을 시사하며, 향후 SAR 분야 기술 내재화 기업에 대한 정부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보여 준다.

### 고해상도 SAR의 전주기 역량을

###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수혜

###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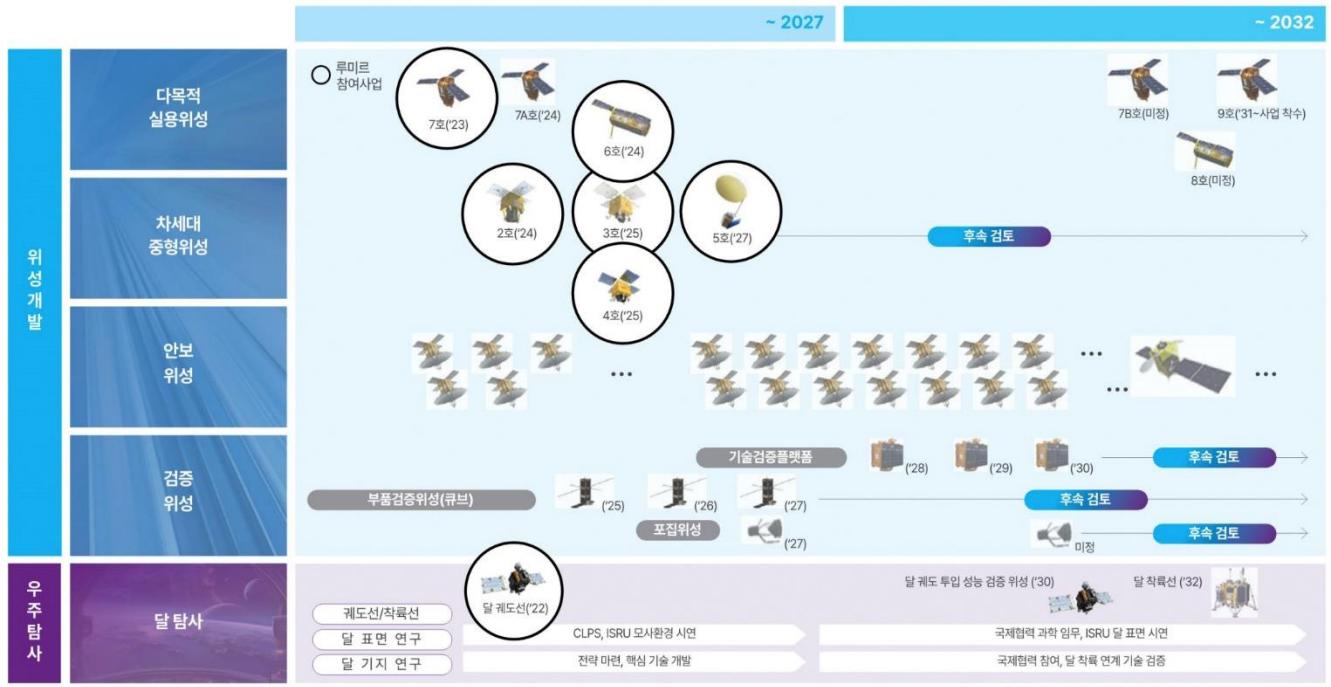
루미르는 국내 민간 기업 중 유일하게 고해상도 SAR 기술, 위성 제작, 영상 수집 및 분석 역량을 모두 내재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부 주도 위성사업에서도 단독 또는 주요 공급사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유리함을 확보하고 있으며, 초기 자체 위성 발사 이후에도 안정적 수주 파이프라인과 장기 현금흐름 확보 기반을 동시에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위성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다목적실용위성	광학	광학	광학	-	<b>SAR(1m)</b>	<b>SAR(0.5m)</b>	광학
차세대중형위성	광학	광학	누리호4차 시험위성	광학	<b>SAR</b>	-	-

자료: 루미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국가 우주개발 계획



자료: 루미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출처: 제 4차 우주개발전용 기본계획(전략2) 첨단 우주기술 확보 추진 로드맵

## ▣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에 대응하는 민수 부문의 고성장

### 우주기술 기반의 고정밀

### 솔레노이드 제품으로

### 민수 사업 병행

루미르는 위성 개발 및 데이터 플랫폼 사업 외에도, 위성 기술의 산업 응용 사례로서 선박용 정밀 제어 부품(대용량 솔레노이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선박 엔진의 연료분사 시스템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으로, 자기베어링 기반 자기부상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고정밀·고신뢰성 사양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우주용 자세제어 기술을 민수 산업에 성공적으로 이전한 대표 사례로, 기술적 차별성이 뚜렷하다.

### 세계 최초 방폭 인증 획득 및

### 국내 대형 조선사 독점 납품

루미르의 솔레노이드는 국내 대형 조선사 H사의 선박 엔진에 독점 납품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친환경 선박 규제(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저감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IECEx 방폭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한 바 있다. 특히 메탄을 및 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 기반의 차세대 친환경 엔진 수요가 본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연료 분사 시 고위험성과 불완전 연소 가능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동형 밸브로서 루미르 솔레노이드의 기술 경쟁력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 연간 1,000대 이상 중형엔진

### 생산, 대체연료 엔진 대응으로

### 솔레노이드 수요는 구조적으로

### 증가 중

해당 조선사는 연간 약 1,000대 이상의 중형엔진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LNG-메탄올 기반의 이중연료(Dual Fuel) 엔진으로 구성된다. 선박 한 척에는 통상적으로 3~6기의 중형 엔진이 탑재되며, 각 엔진마다 루미르의 솔레노이드가 복수 장착되는 구조다. 특히 2024년 기준 해당 중형엔진 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140%를 넘어서는 등 생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고압 직분사 방식의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 납품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처럼 친환경 엔진 전환 흐름과 루미르 솔레노이드 수요는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 선박 1척당 다수의 솔레노이드가

### 장착, 10% 이상 마진율로 양호한

### 수익 구조

IMO의 EEXI, CII 등 연료 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그리고 글로벌 선사들의 친환경 선대 교체 수요 확대는 고정밀 연료 제어 부품 수요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선박 1척당 다수의 솔레노이드가 장착되는 구조로 인해 공급 단가와 수량이 모두 큰 편이며, 마진율 또한 10% 이상으로 양호한 수익 구조를 보인다. 아울러 해당 제품은 기술 인증과 안전성이 중요한 특성상, 진입장벽이 높고 장기 납품 계약 비중이 높은 안정적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 2024년 기준 민수 부문 매출

### 비중 25%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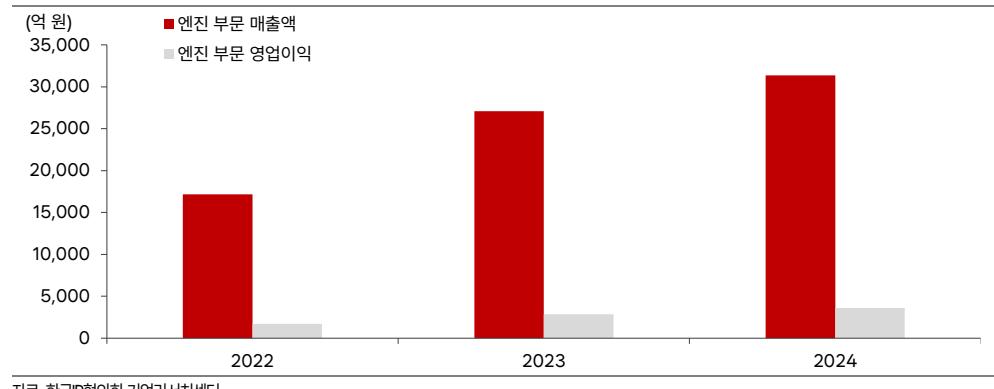
실제 실적에서도 민수 부문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1.8억 원 → 2022년 5.7억 원 → 2023년 28.0억 원 → 2024년 35.7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특히 2022년부터 국내 대형 조선사 H사가 LNG 기반 이중연료 중형엔진 생산에 주력하면서, 해당 엔진에 채택되는 루미르 솔레노이드의 수요도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수 부문은 위성 서비스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루미르의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R&D 투자 재원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익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에도 두 자릿 수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적 성장 측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민수 사업 현황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H사 엔진 사업부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 실적 추이 및 전망

### 1 2024년 실적 리뷰

#### 2024년 연결 매출 143억

원(+17.7%)

루미르는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143억 원(YoY +17.7%)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위성 제조 부문과 민수 부문이 각각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2024년 기준 위성 제조 부문 107.1억 원(YoY +15.2%), 민수 장치 부문 35.7억 원(YoY +27.5%)을 시현했다.

#### SAR 핵심 부품 단독 수주로 기술력 입증 및 수주 가시성 확대

2024년은 자체 위성인 LumirX 1.2호 발사에 앞선 준비 단계로, 아직 위성 데이터 기반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통한 위성 개발 및 제조 매출로 위성 사업 부문의 매출 안정성을 유지했다. 특히, 루미르는 국내 민간 기업 중 유일하게 고해상도 SAR 탑재체 기술을 내재화하여 차세대중형위성 5호, 다목적실용위성 6호 사업에서 단독 수주 실적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정부향 위성 사업 수주 가능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 H사 독점 납품 기반,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로 매출 성장

민수 부문에서는 선박용 솔레노이드 제품이 H사(국내 대형 조선사)에 독점 공급되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IMO(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 및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에 따라 대형 선박 엔진용 고정밀 제어 부품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 민수 부문은 전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며 위성 부문 외 수익 기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영업이익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 크게 감소

2024년 영업이익은 -12억 원으로 전년(-30.2억 원) 대비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매출 성장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와 비용 효율화에 기인한 결과로, 수익성 개선 흐름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같은 해 판관비는 28.4억 원(+23.6% YoY)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자체 SAR 위성 개발 및 핵심 우주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비(7.2 억 원, +63.6% YoY), 신사옥 및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감가상각비(3.4억 원, +47.8% YoY), 코스닥 상장 추진에 수반된 지급수수료(4.3억 원, +19.4% YoY) 등의 일회성 또는 전략적 성격의 비용이 반영된 결과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부담 요인이 되었으나, 이는 위성 서비스 상용화와 우주 부품 내재화 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2025년 이후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성 제작·발사·연구개발·신사옥 등 핵심 영역에 상장 자금 조달 예정

한편, 루미르는 2024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약 28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확보한 자금은 위성 제작, 발사비용, 신사옥 건립, 연구개발 강화에 투입되고 있으며, 자체 위성 1호기 및 2호기 발사 준비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4년은 루미르가 본격적인 매출 기반을 확립하고, 수익성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한 해로 평가된다. 위성 제조 부문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민수 부문에서 고성장 기조를 이어갔으며, 위성 서비스 부문에서도 초기 시장 진입에 성공하였다. 2025년 이후에는 자체 SAR 위성 기반 데이터 사업 확장과 함께 외형 성장과 수익성 동반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2 2025년 실적 전망

#### 2025년 매출액 217억 원(YoY +52%) 전망

루미르는 2025년 매출액 약 21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실적(143억 원) 대비 약 +52% 성장하는 수준으로, 주요 성장 동력은 정부 위성사업 일부 재개에 따른 위성 제조 매출 증가와 민수 부품 매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보 수주잔고 및 정부 위성사업****신규 수주로 위성 제조 매출 성장****전망**

사업부문별로 보면, 위성 제조 매출은 약 141억 원(YoY +32%)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확보된 확정 수주금액(132억 원) 중 약 50% 이상이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에 인식되고, 여기에 더해 정부 위성사업 최소 2건 이상의 신규 수주가 하반기 중 착수되어 일부 매출이 반영될 것이라는 가정이 반영된 수치다. 당초 연간 4건의 정부 위성사업 수주를 기대했으나, 정권 교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매출 실현 여부는 하반기 예산 집행 재개 여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다목적실용위성 7호, 궤도상기술검증위성, 저궤도기상위성 등 정책 연속성이 강한 공공 위성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가 이뤄질 경우, 연내 일부 매출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루미르X 1호 발사 전 사전 마케팅****및 소규모 분석서비스 납품 기대**

위성 서비스 부문의 본격적인 데이터 매출 개시는 2026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나, 2025년에는 LumirX 1호기의 발사를 앞두고 글로벌 고객사를 타깃으로 한 사전 마케팅 및 분석서비스 납품이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약 3억 원 내외의 소규모 매출 발생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동사는 호주, 유럽 등지의 해외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여를 통해 정부기관 및 산업용 수요처에 대한 초기 접근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솔레노이드 밸브 생산설비****확충하여 연간 2배 이상 성장 기대**

민수 장치 매출은 약 73억 원(YoY +104%)으로 예상된다. 주력 고객사의 LNG 추진 중형엔진 수주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사는 해당 고객사에 1차 벤더로 납품되는 솔레노이드 밸브 생산설비 확충을 2025년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년 1분기는 생산이 다소 제한될 수 있으나, 2분기 이후 본격적인 공급이 재개되며 연간 2배 가까운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마진 민수 부문 매출 비중 확대****및 외형 성장에 따른 고정비****레버리지 효과로 흑자전환**

수익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기대된다. 2025년 매출총이익은 34.3억 원으로 전년(16.3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며, 외형 성장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은 2.4억 원 수준의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4년에 발생한 상장 관련 지급수수료는 일회성 비용으로 소멸되며 판관비 부담이 완화되고, 연구개발비는 제한적으로 증가해 자체 SAR 위성 플랫폼 고도화에 중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고마진 구조를 보유한 민수 장치 부문 매출 비중이 전체의 약 34%까지 확대되며 수익성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부문은 안정적인 공급계약 기반과 높은 생산 효율성, 단가 유지력이 우수한 부품 중심의 제품 구조를 바탕으로 전체 사업 중 가장 안정적인 이익 기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체 SAR 위성 발사를 앞둔****마지막 준비기**

2025년은 루미르가 본격적인 위성 데이터 사업자로 전환되기 전 마지막 준비기에 해당한다. 자체 위성 루미르X의 발사를 앞두고, 외부 위성의 SAR 데이터를 분석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영업채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자체 영상 기반 데이터 판매사업의 신뢰성과 수주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6년부터 본격 서비스 개시,****1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매출****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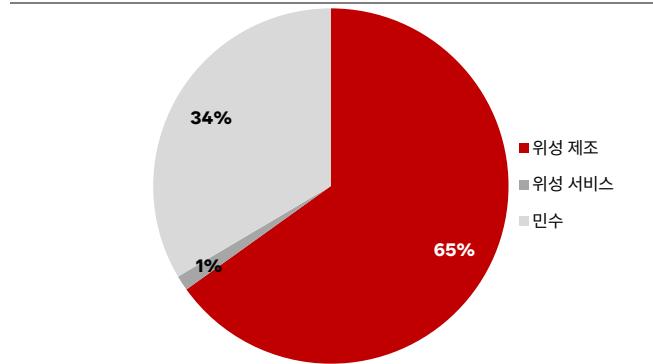
특히 2026년부터는 루미르X 1·2호기가 순차적으로 발사되어 본격적인 상업 서비스가 개시된다. 위성 1기 기준으로 촬영 가능 범위와 고객 대응 역량에 제한이 존재하지만, 정부기관, 지자체, 산업용 수요처를 중심으로 약 10~15개 수준의 초기 고객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당 판매 단가와 분석 서비스 부가가치를 감안할 때, 2026년 위성 서비스 부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약 1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며, 루미르의 고성장 진입을 견인할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업부문별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루미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5F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자료: 루미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실적 테이블

(단위: 억 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64	121	143	<b>217</b>
위성 제조	58	93	107	<b>142</b>
위성 서비스	0	0	-	<b>3</b>
민수	6	28	36	<b>73</b>
영업이익	-24	-30	-12	<b>2</b>
영업이익률	-38.0	-24.9	-8.4	<b>1.1</b>
지배주주순이익	-244	-59	-11	<b>4</b>
지배주주순이익률	-383.5	-48.8	-8.0	<b>1.7</b>
YoY 증감률				
매출액	28.9	90.5	17.7	<b>52.2</b>
위성제조	N/A	60.9	15.2	<b>32.2</b>
위성서비스	N/A	39.5	N/A	<b>N/A</b>
민수장치	N/A	393.4	27.5	<b>104.0</b>
영업이익		적자확대	적자확대	적자축소
지배주주순이익		적자확대	적자축소	적자축소

자료: 루미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Valuation

### ■ 2026년 데이터 사업 본격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시점 도래할 것

#### 2026년 고수익 구조의 수직계열

#### 위성 플랫폼 사업 본격화

루미르는 2026년부터 자체 SAR 위성 기반 영상 데이터 판매가 본격화되며, 수직계열화된 위성서비스 사업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사는 기존 위성 제조 및 민수장치 사업 매출 외에 고수익 구조의 데이터 서비스 매출이 추가되면서 실질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ICEYE는 PSR 10~12배, 고단가

#### 주문형 SAR 영상 판매 모델을

#### 정착

글로벌 SAR 위성 시장에서 루미르와 유사한 사업모델을 보유한 ICEYE(비상장)는 2024년 기준 총 \$158M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약 16~2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추정 2024년 매출(약 \$130M~\$150M) 기준 PSR(주가매출비율) 10~12배 수준으로, 상장 전 뉴스페이스 위성기업에 시장이 부여하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반영한다. 특히 ICEYE는 정부기관 및 글로벌 보험사, 인프라 기업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며 고단가 수요 기반의 주문형 SAR 영상 판매 모델을 정착시켜 가고 있다.

#### 루미르 2026년 예상 매출 기준

#### PSR 3.9배

한편 루미르는 2026년 약 4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며, 이 중 위성 서비스 부문은 자체 영상 데이터 판매를 통해 약 100억 원 내외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루미르의 시가총액은 약 1,580억 원 수준으로, 2026년 예상 매출 기준 PSR은 3.9배 수준이다. 이는 EO(광학) 기반 위성 기업인 Planet Labs(PSR 약 4.1배), BlackSky(PSR 약 3.3배)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며, SAR 위성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EO 기업 대비 두 세배 높은 PSR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26년 본격적인 데이터 매출

#### 가시화될 경우 재평가 기대

비록 루미르는 상업화 초기 단계로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나, 자체 SAR 위성 기반의 수직계열화 모델을 구축 중이며, ICEYE와 유사한 주문형 영상 서비스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SAR 데이터 비즈니스는 고정비 선반영 이후 원가가 0에 수렴하는 구조로, 매출이 누적될수록 수익성이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된다. 2025년은 위성 발사를 앞둔 전환점으로, 2026년 이후 본격적인 데이터 매출이 가시화될 경우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글로벌 SAR, EO 위성 사업자 PSR 비교

기업명	국가	구분	PSR	비고
ICEYE(비상장)	핀란드	SAR	12.3	44+ SAR 위성, 25cm 해상도, 전천후 촬영, 방산/재난/해양 감시, SAR 시장 리더
Planet Labs	미국	EO	4.1	500+ 소형 위성 운영, 일일 지구 스캔, 고해상도 광학 이미지, 안정적 매출 기반
BlackSky	미국	EO	3.3	12~14 개 위성, 고해상도 광학 이미지, AI 기반 지리공간 인텔리전스, 방산 계약 강점

주: 상장 기업(Planet Labs, BlackSky)의 PSR은 2024년 trailing 기준, ICEYE은 최근 펀딩 라운드 기반 밸류에이션을 사용한 추정 PSR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1 정부 예산 집행 지연에 따른 수주 불확실성**

루미르의 위성 제조 사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위성사업 발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실적 가시성 역시 공공 예산 집행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위성 관련 정부 예산은 9,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 하며 확대 기조를 보였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정권 교체 불확실성과 함께 정책 자금의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로 상반기 중 신규 위성 관련 사업 공고는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하반기 이후 자금 집행 정상화 가능성이 존재하나, 정치 일정이나 우주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수주 시점이 재차 지연될 수 있다. 이는 루미르의 외형 성장과 생산능력(CAPA) 활용률, 신규 인력 확충 계획 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기적으로 실적의 변동성을 높이는 리스크로 판단된다.

**2 위성서비스 사업 초기의 고객 확보 속도 글로벌 경쟁 심화와 가격 경쟁 우려**

2026년부터 본격화될 루미르의 위성 서비스 사업은 자체 SAR 위성을 통한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를 판매하는 구조로, 기존 위성 제조 및 장치 판매 대비 고수익성이 기대되는 신사업 영역이다. 그러나 위성 발사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레퍼런스 및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고객 확보 속도에 따라 실질적인 매출 창출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SAR 위성 시장은 ICEYE, Capella Space, Umbra 등 이미 수십 기 이상의 위성을 운용하며 다양한 B2G/B2B 고객을 확보한 선도 업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과 비교해 루미르는 위성 수량, 영상 제공 주기, 글로벌 커버리지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단기간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및 지자체 대상의 영업력 확보와 차별화된 분석 기술 제공이 필수적이다. 초기 서비스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향후 플랫폼 사업 확대 및 후속 위성 투자 유치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49	64	121	143	217
증가율(%)	N/A	28.9	90.5	17.7	52.2
매출원가	36	72	129	126	183
매출원가율(%)	73.5	112.5	106.6	88.1	84.3
매출총이익	13	-8	-7	16	34
매출이익률(%)	26.9	-12.8	-6.0	11.4	15.8
판매관리비	17	16	23	28	32
판관비율(%)	34.7	25.0	19.0	19.6	14.7
EBITDA	-1	-19	-24	-5	14
EBITDA 이익률(%)	-1.4	-30.1	-19.9	-3.5	6.5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영업이익	-4	-24	-30	-12	2
영업이익률(%)	-8.2	-38.0	-24.9	-8.4	1.1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영업외손익	-0	-220	-29	1	1
금융수익	0	0	3	3	4
금융비용	1	10	35	0	0
기타영업외손익	1	-210	2	-2	-3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4	-244	-59	-11	4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흑전
법인세비용	0	0	0	0	0
계속사업이익	-4	-244	-59	-11	4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4	-244	-59	-11	4
당기순이익률(%)	-9.0	-383.5	-48.8	-8.0	1.7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4	-244	-59	-11	4

##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116	167	310	396	411
현금성자산	88	89	252	105	73
단기투자자산	0	0	2	221	232
매출채권	9	22	17	41	63
재고자산	12	26	11	7	10
기타유동자산	7	30	28	22	33
비유동자산	42	66	157	324	349
유형자산	30	36	99	146	171
무형자산	11	26	51	92	90
투자자산	1	4	3	5	7
기타비유동자산	0	0	4	81	81
자산총계	159	233	467	720	760
유동부채	81	556	132	87	117
단기차입금	56	57	55	25	25
매입채무	1	2	3	0	0
기타유동부채	24	497	74	62	92
비유동부채	0	7	13	23	30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3	3	2	3
기타비유동부채	0	4	10	21	27
부채총계	81	562	145	110	146
지배주주지분	77	-329	322	610	613
자본금	20	14	73	89	89
자본잉여금	87	0	636	918	918
자본조정 등	0	-9	5	8	8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30	-334	-393	-405	-401
자본총계	77	-329	322	610	613

##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	-85	50	-263	11
당기순이익	-4	-244	-59	-11	4
유형자산 상각비	3	5	5	6	10
무형자산 상각비	0	0	1	1	2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1	-67	72	-262	-3
기타	0	221	31	3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5	-16	-90	-156	-65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	-0	-1	0	-1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2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3	-6	-68	-56	-35
기타	-11	-10	-21	-102	-29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2	103	203	272	2
차입금의 증가(감소)	22	2	-0	-30	2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70	0	0	297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0	101	203	5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21
현금의증가(감소)	65	1	163	-147	-32
기초현금	23	88	89	252	105
기말현금	88	89	252	105	73

##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N/A	N/A	N/A	N/A	432.3
P/B(배)	0.0	N/A	0.0	3.0	2.6
P/S(배)	0.0	0.0	0.0	11.1	7.3
EV/EBITDA(배)	N/A	N/A	N/A	N/A	92.7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EPS(원)	-40	-1,976	-424	-75	21
BPS(원)	633	-2,523	2,190	3,440	3,460
SPS(원)	446	515	869	934	1,226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5.7	193.9	1,524.6	-2.5	0.6
ROA	-2.8	-124.7	-16.9	-1.9	0.5
ROIC	N/A	-26.7	-22.7	-6.1	0.9
안정성(%)					
유동비율	143.8	30.0	234.6	453.7	352.1
부채비율	104.9	-170.8	45.2	18.1	23.8
순차입금비율	-32.3	-138.5	-58.9	-47.7	-43.5
이자보상배율	-3.1	-2.3	-9.8	-276.3	75.5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3	0.3	0.3	0.2	0.3
매출채권회전율	5.5	4.1	6.2	4.9	4.2
재고자산회전율	4.1	3.4	6.6	16.2	25.5

###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루미르	X	X	X

####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05.13	2026년 도약이 기대되는 루미르

####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